10만 불자, '화합' 부처님께 서원하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축제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 저력 보여준 축제 한마당
천명의 스님과 10만 불자 모여
웅장한 법석, 불교 진리 전해


불교문화축제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담은 금어연이 지나가자 대중들의 환희심이 고취됐다.

취타대와 오방번이 선두로 나서고 화동이 꽃을 뿌리는 길을 따라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운됐다. 금어연 속에 이운되는 진신사리를 쳐다보며 10만 명의 불자들과 시민들은 합장하고 오직 화합과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하나가 된 불교의 힘을 보여주는 범불교도대회가 개최됐다.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경선)는 10월 20일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축제를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했다.

축제는 오전부터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방문하는 시민들을 반겼다. 37개 신행단체가 참여한 역대 최대 부스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불무도, 다도, 탁본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을 제공해 오고가는 시민들은 불교문화 속에서 주말을 만끽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 참가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과 법회를 위해 자리를 정돈했으며 화려한 취타대의 소리와 발걸음에 맞춰 진신사리 이운 행렬이 시작됐다. 무대 중앙으로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진신사리가 이운되고 그 뒤를 따라 스님들과 내빈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내빈들은 헌화로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했으며 불교TV염불공양팀이 육법공양으로 화려하게 장엄하며 법회 시작을 알렸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법주스님 등단 △개회선언 △내빈소개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봉행사 △대회사 △100만 결집 불사 약정서 교환 △치사 △봉축사 △대통령 메시지 △축사 △종정 진제 스님 영상 메시지 △법어 △결의문 낭독 △자비의 쌀 전달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 후 화합한마당으로 모모랜드, 더보이즈, 드론공연, 송가인의 무대가 이어졌고 진신사리 친견은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시민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친견의 기쁨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동이었다"고 기뻐했다.

김소라(56) 불자는 "오전 9시부터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다"며 "늦은 시간이지만 부처님을 뵙는 심정으로 이 시간까지 기다려 부처님 사리를 친견하고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이런 좋은 법회를 열어준 주최 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회에서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유 스님은 불교의 참된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에 있음을 강조했고 불교의 저력은 화합에 있음을 재차 설명했다.

지유 스님은 "생명에 귀천이 없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이 가르침이 불교 핵심이며 실천할 바이다. 또한 팔만대장경을 만들며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수호한 불자들이었다. 지금도 불자들은 하나가 되면 무엇보다 뛰어난 저력이 있다. 화합하고 다른 종교도 포용하며 참된 불자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대축제는 부산 불자들의 불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한국 불교의 위대한 가치를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며 "오늘 축제에서 밝힌 작은 불씨가 확산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 세계의 더욱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또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를 강조하며 "불국토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운동이며 보시바라밀을 시작으로 부처님 법을 바로 세우는 자리이타 보살행에 다 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경선 스님은 "이번 불교대축제를 통해 불자에게는 불교라는 공통의 믿음을 상기시키고 비불자에게는 문화로서 불교를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축제는 어떤 경계도 없으며 자비로운 부처님 마음뿐이다. 화합만이 가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회신도회장은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모든 분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여 한국불교의 기틀이 될 것이다. 불교 화합의 힘은 이 시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응답이 되어 불교 가치로 행복을 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명예원로의원 명선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 및 종단에서 천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재가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세연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등 10만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11대 포교사단장에 방창덕 現단장 선출

포교사 자긍심 제고, 위상 강화 제1공약으로 내걸어



제11대 포교사단장에 방창덕 現포교사단장<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10월 22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선거권을 지닌 35명의 운영위원 중 33명이 참여했으며 방창덕 단장은 19표를 획득 선출됐다. 선거에 함께 출마한 신호승 인천경기지역단장은 14표를 얻었다.

방창덕 단장은 출마의 변에서 무엇보다 포교사들의 위상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방 단장은 "7개월여 동안 포교사단장 소임 경험 바탕으로 그동안 돌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포교사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신바람 나는 포교사 활동으로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2020년 진행 예정인 포교사단 창립 20주년 기념 팔재계 법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며, 일선 포교현장에서의 포교사들의 활동을 다큐로 제작해 홍보하고, 포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 운영위원 소통방과 포교사 토론방 개설, 포교사단 단보 발행, 포상제도의 대폭 확대 등을 들었다.

방 단장은 "포교사들의 자긍심 고취가 중요하다. 사실 지난 7개월 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참회하는 시간으로 헌신으로 포교사단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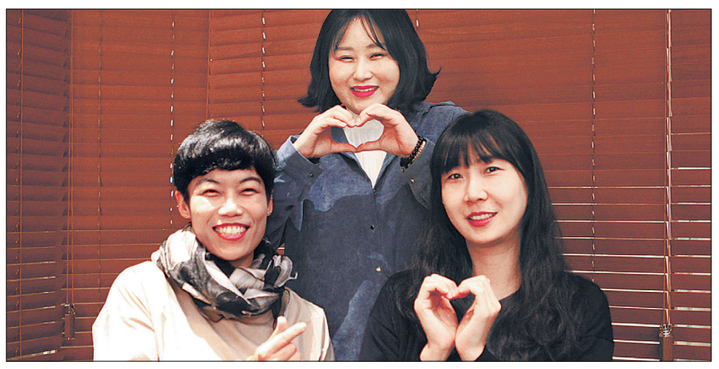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포현재 68세로 포교사 16기, 전문포교사 9기 출신으로 대구 한국불교대학 총동문신도회 수석부회장과 포교사회 회장, 포교사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구 염불포교 홍련팀장, 남서부 총괄팀장, 대구지역단 9대 수석부단장 등을 지냈다.

노덕현 기자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⑤

불교 알리는데 청년불자 '일심동체'

청년불자 반야팀


사진 왼쪽부터 김경순 · 김가영 · 김근아 씨.

'청년불자 반야'. 다소 생소한 이름이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불자들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콘텐츠인 '청년불자 반야'는 불자청년들이 모여 진행하는 불교 영상콘텐츠다. 조계종 불교크리에이터 1기에 위촉된 청년불자 반야팀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앞두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지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팀으로 활동하는 추세에 맞게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배분해 불교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10여명의 팀원이 있지만 임원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들은 6명이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불교 콘텐츠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 의기투합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반야 팀들은 이미 2015년부터 반야율동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반야에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가영 씨, 김경순 씨, 정승은 씨 등은 조계사서 인연을 키워왔다. 반야율동단이란 청년회 율동포교에서 인연을 맺고 더욱 활발한 뉴미디어 포교를 진행하기 위해 반야팀을 결성했다.

김경순 씨는 "사실 불교를 좋아하는 무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불교 청년회에 관심있는 친구와 함께 청년회에 입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청년회서 남편까지 만난 정승은 씨, 모태불자이긴 하나 초파일 불자애서 점점 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 김근아 씨 등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신심은 제각각이지만 불교를 알린다는 생각서는 일심동체다. 반야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블로그에 이어서 인스타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불교 휴대폰 배경화면 등을 꾸준히 개발해 선보일 예정.

"함께 선정된 불교 크리에이터 1기와 함께 꾸준하고 다양한 콘텐츠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앞으로 2기, 3기가 계속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사회갈등 치유 위한 명상페스티벌 열린다

명상으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학회장 인경)는 11월 10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제8회 힐링? 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참가자 전체참여로 인경 스님의 호흡명상, 윤미숙 박사의 알머지 요가, 이영순 박사의 동작 명상 등이 진행된다. 제2부는 개인별 선택 프로그램으로 각 주제별로 20명씩 소그룹을 나눠서 진행되며 1주제 감정만나기서 김광호 박사의 오감명상, 허수미 강사의 이미지를 활용한 느낌명상이, 2주제 감정과 친해지기에서 용진 스님의 호흡명상, 장우혁 박사와 안경희 강사의 자비 명상이, 3주제 스트레스 분노표현하기서는 동진 스님과 최정효 강사의 미술과 함께하는 명상, 김창중 교수와 김영미 박사의 역지감지 명상 등이 진행된다. 4주제와 5주제에서도 다양한 명상강좌가 이어진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인경 스님과의 걷기명상으로 마무리 된다. (02)2236-5306

노덕현 기자